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석탄발전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후정의 기도회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2시

장소

충청남도 태안군

기도회 앞뒤로 현장탐방과 간담회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과 신청은 하단링크와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 임준형 집행위원장 010-4744-2051



인도 : 유 미 호 센터장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주께 나아감 이사야 55 : 6 ~ 9 다함께

인도자 :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회 중 :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인도자 :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주시리라.

회 중 :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인도자 :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다함께 :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는 노래 "여기 오소서" 다함께

여 기 오 소 서 내 주 여 여 기 오 소 서 내 주 여
 우 는 자 위 해 오 소 서 우 는 자 위 해 오 소 서
 놀 린 자 위 해 오 소 서 놀 린 자 위 해 오 소 서

여 기 오 소 서 내 주 여 오 주 여 오 소 서
 우 는 자 위 해 오 소 서 오 주 여 오 소 서
 놀 린 자 위 해 오 소 서 오 주 여 오 소 서

기도 인도 강규희 사무총장
 (천안YWCA)

하늘 뜻 읽기 마가복음 4 : 35 - 41 윤동혁 간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

35. 그 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 두고,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37.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9.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 * 말은이 : 이는 성서를 통하여 주신 하늘 말씀입니다.
- * 회 중 : 겸손히 새깁니다.

하늘 뜻 펼치기 "저 편으로" 송기훈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응답의 노래 "이 말씀 따라" (2번 부름) 다함께

F C7 F Gm Bbm F C7

이 말씀 따 - 라 사 는 동 안 지 치 지 않 - 게 하 시 고

F A7 Dm Bbm F/C C7 F

이 말씀 따 - 라 사 는 동 안 주 님 나 라 이 루 소 서 -

공동 기도 다함께

- 인도자 :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회 중 :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 인도자 :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기후위기의 현실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 회 중 :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후정의를 위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 인도자 :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탐욕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회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은총을 떠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 회 중 : 우리가 이미 창조세계에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먼저 기후약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 인도자 :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 회 중 :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 다같이 : 기도를 이어가는 곳마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명서 낭독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하겠습니다." 맡은이

- . 김영현 사무총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 원예은 간사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결단의 노래 "옳은 길 따르라"(1,2,4절) 다함께

1.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2. 주에 수 따르라 승리 의주 세계 만민이 나아 갈 길
 4. 고난 길 헤치고 찾아 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

길 따르사 살 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 갈 길
 과 진리요 참 생 명 네 창점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왕
 두 나와서 민 으 면 온 세상이 마침 내 이 진리에 살 겠 네

후렴 Eb Bb7 Eb Bb Eb (Bb Eb)
 어 든 밤 지나고 동 뜬 다 환한 빛 보 아 라 저 빛

(Bb7 Eb) Ab Adim Eb (G) Cm (Fm) Eb Bb7 Eb
 주 예 수 의 나 라 이 땅 에 곧 오 겠 네 오 겠 네

공동축도 다함께

인도자 : 지구별 생명의 하나님은 지금여기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회 중 : 생명의 길 앞서신 예수의 정의와, 지구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일으켜 복돋우시는 성령의 평화바람이, 신음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지체들을 끌어안아 생동하는 길로 이끌어내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위에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신명기 16:20)

지난 3월 30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은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상황은 심각해져가고 있고, 그로 인한 재난이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우리 이웃들의 삶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던 지역주민들의 삶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함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간 기후정의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우리가 소망한 정의는 기후위기가 불러올 고통 속에서 위협당하는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삶을 지키는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이 전제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태안지역의 주민들의 삶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화석연료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불의한 사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재난은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폭우와 홍수, 강력한 태풍과 흑한은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돈을 먹고 살수는 없고,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탐욕이 이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화석연료를 통해 돈을 버는 자본가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고, 생태적 전환으로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이들이 재난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고, 지구 곳곳이 황폐해졌으며, 수많은 생물은 멸종을 당했습니다. 에너지는 인류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발전과 성장이라는 허상에 얽매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룩한 성장과 발전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구조 속에서 자본가들은 돈을 벌고 이익을 얻었으나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했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한 채 노동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회심하지 않는 이 구조와 체제에 반대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면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역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자의 전환을 위한 재교육과 산업의 전환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전환의 과정에서 결코 노동자들이 배제되어선 안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노동자들이 전환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 역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이 전환의 과정에서 당연한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을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의 당연한 주체로 인정하십시오. 노동자들의 요구에 기반하여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지역의 삶을 지키기 위해 산업의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될 예정입니다. 그 중 14기는 이곳 충남지역에 존재합니다. 2021년 산자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34년까지 폐지되는 30기 인원 모두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가 LNG발전으로 전환되더라도 4,911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7,935명의 노동자는 지역의 주민입니다. 그들의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관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존재합니다. 발전소와 연관된 업종 뿐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들의 식사와 생필품을 책임지는 상인들까지 따진다면 발전소의 폐쇄는 지역경제의 몰락을 불러올 위험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못할 LNG발전은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 질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입니다. 에너지 생산의 이윤이 일부 자본가들의 삶만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추고 지역이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변화할 수 있다면 이는 지역을 살리는 일일 뿐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전환의 주체로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6일 부산에선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의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파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이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임을 압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길에서 그간 삶을 바쳐 에너지 생산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정의로운 길을 향한 투쟁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일뿐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투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당신의 백성을 향해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신명기 16:20)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세상엔 새로운 질서, 즉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를 저버린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후정의의 새로운 세상은 노동자와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수반되어야만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정의의 새날을 소망하며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의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세상 보기를 꿈꾸며 그들의 곁에 설 것입니다.

2024년 6월 26일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